

2021 년 신축년 2 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8-02-2021

2021 년 2 월 선교소식—베네수엘라와 쿠바한인후예(손)들 소식

어이할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전술과 전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에게는 쉼의 시간을 주시어 베네수엘라와 쿠바선교의 발자취를 회상하며 기록 할 시간을 주십니다. 23 일 드디어 82 세로 노인이다. 아니야! 이제 100 세 시대다. 아~ 아직도 18 년이나 남았구나. 100 세까지는... 할렐루야!

베네수엘라 소식

전통적인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2000 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2006 년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스페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에서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반미주의를 한국이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을 정도.

하지만 2016 년 남미의 최고 부자 나라로 손꼽히던 베네수엘라가 국민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상황까지 전락했다. 빈민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며 대학생을 비롯해 중소기업 사장, 자영업자 등의 중산층도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는 상황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와 실정으로 허약한 체질의 베네수엘라 경제는 가장 큰 돈줄이던 석유가격이 폭락하자 말 그대로 완전히 파탄나버렸다. 다른 산유국들처럼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경제 기반을 잘 다져왔었다면 석유가격 폭락에도 버티거나 설령 경제위기 등의 타격을 입었어도 그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진 않을 수 있었으나, 정작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와 파멸의 연속. 대신 야당탄압과 언론통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얻은 지지를 기반으로 헌법을 고쳐 장기집권을 하는데에 집중했었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국가혼란으로 치안은 악화되고 정치,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으로 파산. 산유국의 이점을 살리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결국 이로 인해 한때 남아메리카에서 석유 광업으로 부자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난으로 굶주린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들로 떠나는 비참한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탈출자는 480 만명으로 추산하지만 600 만명이라는 수치가 일반적인 견해다.(위키페디아서 퍼옴)

베네수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로 예배 할 수 없게되었다.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수도 없다. 컴퓨터나 셀폰을 갖고있는 성도님들이 많지않다. 카리브복음

2021 년 신축년 2 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8-02-2021

신학교에 설치중인 케이블 TV 가 증개역활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본다. 은퇴자들의 사회보장금 (INSS)은 월 \$700 (2000 년)에서 현재 \$0.5 쉐트로 하락하였다. 현 환율 Bs.1.8Milion/1US\$로 미화 1 달러당 >1.8M, 백 80 만 보리바르다 (2 월 28 일). 휘발유 값은 여전하다. 이란 석유배가 들어오면 하락하다가 결국 \$2/L 정도다. 최저임금 \$0.5 (미화 50 쉐트)로 구입하기 쉽지않다. 석유매장량은 세계 1 위이지만 정유공장이 가동되지않는다. 사회주의정책 20 년의 산물이다.(전월 중복)

카리브복음신학원소식

할렐루야! 2021 년 봄학기에 학사과정에 36 명 석사과정에 36 명 총 72 명이 등록하였다. 특수과정은 3 월 중순에 시작한다. 모든 교수는 베네수엘라 현지인으로 카리브복음신학원을 졸업한자들이다. 베네수엘라 신학교는 문교부에 등록이 안 된다. 그러나 본교 졸업자들은 매릴랜드신학교 (안준식 학장) 졸업장과 영사인증 (Apostillos)으로 카리브복음 신학원의 존재가치를 더욱 더 Upgrade 하였다. zoom 줌 영상강의 위하여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소유하도록 도움을 주고있다. 카리브 복음신학원에 케이블 TV 알파와 오메가 (A&Ω)를 설치하였다.



카리브신학교 하이메오두벨 Jaime Oduer (학사졸업 후 목회학석사 과정)목사님은 엘띠그레 El Tigre 선교교회를 봉사하며 학사과정을 오픈하여 10 명의 학생들 지도한다. 본교 교수들이 지원을 받으며...

쿠바한인후예(손)들 소식

쿠바한인후손들 사는 마을/도시



서부: 아바나 284명, 마탄사스 261명, 까르데나스 291명
 중부: 씨에고데아빌라 25명, 까마구이 141명
 동부: 마나띠 51명, 홀긴 56명, 마르까네 73명



헤로니모 임은조 전 한인후예회장과 동부지역까지 다녀왔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 800 여명으로 추산하였다. 통신이 쉽지않고 방문하여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제 고인이된 임은조 형제을 기리며 쿠바혁명당시 퇴색된 사진을 보며 감개무량하다.

2021 년 신축년 2 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8-02-2021

쿠바 수도 아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2 차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2 월 1 일 (현지시간)부터 강도 높은 봉쇄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바나 밖으로 나갈 수도, 다른 도시에서 아바나로 들어올 수도 없게 되었다. 아울러 오후 7 시부터 이튿날 오전 5 시까지 통행금지가 적용되며, 어린이와 노인 등은 나머지 시간에도 외출할 수 없다. (쿠바한인 후예들 지도부와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통화, EFE 통신 참조함)

쿠바한인후예들과 합의하여 동부와 서부지역에서 가정교회 목자 지도자 세미나를 계획 하였는데. 출발 몇일전 지도자들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입국시 코로나 검사로 음성판정 받아도 “7 일간 격리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교회 방문이 금지되었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다른계획이 있을 것 이рода. 쿠바와 캐나다는 좋은관계를 유지하고있다. 캐나다 한인교회들이 나설 때 이다. 은혜와 평강교회 (장동철 목사) 젊은이들이 쿠바청소년들과 수련회를 갖도록 계획하였는데. 무산되었다. 1977 년 부터 쿠바한인 후예들을 찾아 25 년간 방문하고 있으나 8 개도시에 거주하는 1230 여명의 후손들에 물질적 도움주고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구제사업과 의료선교가 위주였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입으로 시인한 성도들에게 침례를 배풀어야한다고 굳게 다짐 하였지만 실행하기 힘들었다. 두려움과 출국당할것으로 느껴져 실행하지못하였다. “죽으면 죽어리라”는 각오로 2018—2019 년 사이에. 마르까네, 마나띠, 씨에고데아빌라, 까르데나스, 마탄사스 한인 후손들 중에서 36 명에게 침례를 배풀었다. 외국인은 집을 살수도없고 쿠바사람도 한가정당 한집만 구입이 가능하다. 독립된 가정교회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며 렌트도 쉽지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 하신다. 쿠바정부의 기독교 억압정책으로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한다. 카리브신학교 출신 독신 선교사 파송도 생각해 본다. (일부 지난달 중복)

Petición de Oraciones 기도제목

1.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정치위기 (독재정치) 생명위기 (코로나 19) 생활위기 (억만% 인플레이션) 극복하도록. 12 월 6 일 국회의원 선거 후풍 잘 정리되도록.
2. 카리브복음신학원 케이블 TV 개설로 복음전파에 도움되고 학생들 온라인강의가 가능하여 베네수엘라 목회자양성 주축되도록.
3. 쿠바한인후손들 복음전도로 생명길 선택하고 어려운 생활환경 가운데도 굳건히 믿음생활 계속하여 천국의 기쁨을 향유하도록.
4. 쿠바입국 선교탄압 완화되고 8 개지역 1230 여명의 한인후손들 섬기는 가정교회 지도자 형제들 제자훈련 가능하도록.

Contacto 연락처

- Venezuela 베네수엘라: Seminario Evangelico del Caribe 카리브복음신학원. Calle Niquitao #42, Cumana, Venezuela. Rev. Kyung Suk Chung 정경석 email: kyungsukchung@yahoo.com +53 0414-773-1443, 0412-305-0190
- Cuba 쿠바 +53 55.79.32.63. kchung@nauta.cu
- USA 미국 +1 415-712-6023 kyungsukchung@gmail.com 555 10th St. Apt. #201, Oakland, CA 94607 카톡 KSCHUNG0223 whatsapp 통화가능
- 웹: www.seminarioevangelicodelcaribe.blogspot.com 신학교 정보가능. 업그레이드 중

후기: 사람을 길러 일 하시는 하나님 응보 결과 회고.

베네수엘라 해양연구소 대학원 실장으로 봉사 할 때 1990 년 중반이다. 블란카 에르난데스 Blanca Hernandez 어머니(Luisa Hernandez)가 날 찾아오셨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야하는데 우리대학교 UDO 병리연구과에 불합격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얘기다. 성적을 보니 B- 정도다. 수고레주 학사담당관이 친구로 부탁하였다. 당시 교수 자녀들은 어느과나 합격시켜 공부 할 수 있었다, 블란카가 내 딸 (혼외자식 Hija Natural)이라고 속였다. 출생증이 말하지않으니 힘들다고 하였다. 우여곡절끝에 결국 UDO 의과대학에 입학시켰다. 그 후 아무 소식없이 25-6 년이 흘렀다. 나는 신학교 설립과 골든게이트 신학교 MDiv 와 DMin 과정을 마치고 카리브신학교를 17 여년을 운영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딸 아들이 MIT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여 손주들 보는 재미에 혼외 딸이라고 속인 것 완전히 잊고있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것 처럼.

쿠마나제일침례교회 (에프란이에구에 목사, 카리브신학원 MDiv) 의료봉사와 젊은 청소년 사역에 열중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장본인이 블란카 이였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0 년 목회학석사과정 명단 이름에 내 눈이 고정되었다. 블란카 에르난데스! 1990 년 중반이었으니 의과대학 7 년 수련 감안하면 20 여년을 의사로 봉사하는데 40 대 중반의 아주머니다. 그런데 썬폰도없다. 왜? 대쪽이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약 1:22-24)



블란카 가족과 의료행보. 대쪽같은 성깔로 썬폰도 없으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도다. 할렐루야!